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마음 속을 살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6호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종교인 노후복지, 공적연금체계 지원 절실

국민연금연구원 실태 조사 보고서 지적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공적연금과 교단 연금체계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들의 노후 보장 욕구수준에 비해 준비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은 평균 3.07점(5점 척도)이다. 불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3.1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천주교는 2.71점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교단(종단) 별로 구분하면 조계종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신교는 감리회(3.26)가 가장 높았고 예장합동 · 예장통합(3.12), 기장(2.80) 순이었다. 태고종은 2.82점으로 낮게 집계됐으며, 천주교는 이보다 더 낮았다.

종교인들의 이 같은 노후 걱정은 월평균 수입과 교단별 노후복지제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종교인 월평균 수입은 개신교가 202.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천주교(102.27만원)와 불교(99.77만원)는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천주교가 55.6%로 집계돼 개신교(34.7%), 불교(31.8%)보다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 종교 모두 일반인 가입률(69.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게다가 불교와 천주교는 자체적인 연금제도가 없고, 개신교가 연금형태 현금지원제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적용자 비중은 1/3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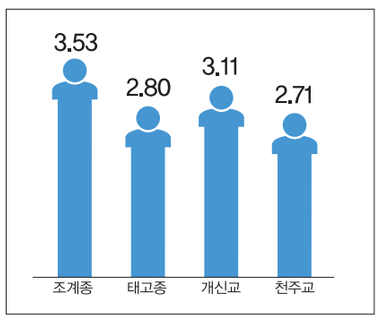
'노후준비 수단 없음' 불교 最多

조사에서 종교인들은 '의료(3.52점)'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의식주(3.15점), 여가(2.93점) 순이었다. 특히 불교는 3가지 기본 욕구영역에서 타 종교 종교인들에 비해 욕구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준비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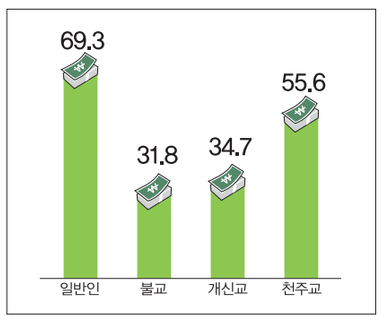
노후에 겪게 될 어려움이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준비하는 수단으로는 '공적연금제도(40.5%)'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종교별 응답서 불교는 '노후준비 수단 없음'이 45.5%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 · 천주교보다 20%가량 높은 수치다.

종교인들은 노후준비 수단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종교인의 노후보장 주체는 '교단(종단)'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9.3%로 나타났다. 불교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종교단체 제공 연금제도(3.93점)' '종교단체 제공 의식주 관련 현물급여(3.86점)' '공적연금제도(3.84점)' 등의 필요성이 높았다.

종교인 노후걱정수준 (5점 만점)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 (%)



스님들 노후 걱정 가장 높지만
준비 수단 全無… 대책 필요해
국민연금 가입율도 31% 그쳐
"연금보험 부과체계 정비해야"

이 같은 결과에 연구원 측은 "종교단체서 제공하는 자체 노후보장제도가 급여수준이나 적용범위 측면서 열악하고, 개인연금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교단 소속 종교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단별 지원 체계 천차만별

조사에 따르면 종교 · 종단별 종교인 노후보장 지원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기존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한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개별 사찰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함에 따라 별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연구원 측은 종교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특례가입사업장 적용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교인은 일반 국민처럼 국가 과세체계나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서 가입을 유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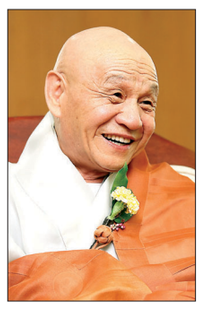
연구를 담당한 유희원 연구원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종교계에 특정 제안을 먼저 하긴 어렵다. 다만 조계종의 '임의가입자' 형식처럼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비용적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종단 차원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신청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금공단과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보조적으로 종단 및 교구가 돕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三毒 불길 잡는 者 민심 · 대권 잡아"

무산 스님, 10일 안거 해제법어
신흥사 · 백담사 사부대중 참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는 2월 10일 병신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신흥사와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 설악 무산 스님〈사진〉은 백담사 무문관서 다른 8명의 수좌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석 달간 정진을 마친 뒤 법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무산 스님은 해제 법문을 통해 "오늘의 고통과 중생의 아픔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중생과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사무치고 사무쳐야 사무침이 다 해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이어 현 세태에 대한 국면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스님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것이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의 추태가 점입가경(漸入佳景)이다.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는 것이 마치 선거때마다 남발하는 공약 같다"며 "사실 자고나면 남을 헐뜯으며 깎아내리는 종잡을 수 없는 유언비어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보면 뭘 좀 많이 안다고 지레짐작하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고 묻는다. 삼독(三毒)의 불길을 잡는 사람이 민심도 잡고 대권도 잡는다고 정중히 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사실상 지금 세계는 삼독의 불바다이다.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의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되어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담사 검인당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건봉사 주지 마근 스님을 비롯해 낙산사 주지 도후 스님,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조계종 제3교구 동안거에는 신흥사 향성선원 12명, 백담사 무문관 8명, 조계종립 기본선원 53명 등 총 73명의 수좌들이 정진했다.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졸업, 새로운 출발 새 목표위해 정진

동국대, 16일 봄 학위수여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6일 2017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637명이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가르침을 굳게 믿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갈고 닦은 전공분야의 지식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수불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앰배서더 호텔그룹 서정호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가 각각 수여됐다.

한편, 네팔인 자재 스님은 외국인 최초로 불교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 화제가 됐다. 〈관련 인터뷰 4면〉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 스님들이 학교의 상징인 팔정도 광장 부처님 앞에서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학업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학문과 수행, 전법의 만행에 오른다. **사진=노덕현 기자**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